

영광 지역기업 서영, 전남 첫 여자실업검도팀 창단

전국 10번째 팀...감독에 김창근, 선수 김혜선·김다해·이정은 등 구성 을 전국체전 참가...단장 장동우 대표 "우수 선수 운동 전념토록 최선"

전남에서 처음으로 여자실업검도팀이 창단했다. 2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서영(대표 장동우)이 전남 영광읍 더뉴스타 웨딩홀에서 ㈜서영 여자 검도팀을 창단했다. ㈜서영은 전기공사가 주력인 영광지역 기업이다.

서영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 10번째 여자검도팀으로 창단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장동우 대표, 이개호 국회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강필규 영광군의회 의장, 장은영 박원종 전남도의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정병환 영광군체육회장, 전남검도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영 여자 검도팀은 장동우 대표를 단장으로 김창근 전남검도회 전무이사가 감독을 맡고 김혜선(전 전남체육회), 김다해(전 화성시청), 이정은(전 포항시체육회) 선수를 구성했다.

김혜선은 초당대를 졸업하고 전남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제103회 전국체전 여자부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제8회 회장배 전국실업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했다. 김다해는 용인대를 나와 화성시청에서 선수로 활약했다. 제17회 경찰청장기 전국대회 여자부 개인 3위에 올랐고 회장기 전국 단별선

수권 대회여자 4단부에서 준우승했다. 이정은은 초당대를 졸업하고 포항시체육회에서 활동했다. 제15회 미르치과기 전국대회에서 개인 준우승을 차지했고 제19회 추계전국실업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서영 여자 검도팀은 올 전국체전에서 참가한다.

장동우 대표는 "㈜서영이 여자검도팀을 창단해 매우 기쁘다"며 "우수한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현재 전남검도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광군검도회장, 전국 검도실업연맹이사, 전남검도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검도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서영 여자검도팀 창단으로 전남 검도 종목 우수선수 확보와 연계육성이 강화됐다. 팀 창단에 힘써주신 장동우 회장님 감사드린다"며 "전남도체육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 향토기업인 ㈜서영(대표 장동우)이 지난 23일 영광 더뉴스타 웨딩홀에서 여자실업검도팀 창단식을 열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장동우 서영 대표 등 행사 참석자들과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오늘 개막

28일까지 1900여명 화합 한마당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제17회 광주시장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이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종목별 경기장 10곳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일상 속 내일이 빛나는 장애인체육, 꿈과 도전이 있는 장애인체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1900여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비장애인 동호인들이 참가해 소통과 화합의 축제를 즐긴다.

경기는 모두 29개 종목(화합 경기 7종목, 어울림 대회 11종목, 뉴스포츠 대회 11종목)으로 치러진다.

25일 오후 2시 개최식 이후 펼쳐지는 '화합 경기'는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함께 하는 '장애물 이어달리기', '지구를 굴러라' 등 7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별 참가자 450여명의 구별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수영 등 11개 종목 95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종목별 어울림대회'도 6월3일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이어진다.



지난해 열린 광주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화합 경기(사랑의 유람선).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시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뉴스포츠대회'는 26일 오전부터 350여명이 참가해 닌텐도 등 1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펼쳐질 이번 대축전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정과 스포츠 정신이 143만 광주시민의 생활 속에 함께 스며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는 대회 기간 '광주응급환자이송단'과 협력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구조차량과 응급처치사를 현장에 배치해 안전한 대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주 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은 빛고를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여자야구 "아시아 넘어 세계로"

아시아컵 출전 위해 출국...4위 안에 들면 야구월드컵 본선행

열정으로 뭉친 한국 여자야구대표팀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 서겠다"는 각오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나섰다.

양상문(62)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제3회 아시아야구연맹(BAF) 여자야구 아시안컵에 출전하고자 24일 홍콩으로 출국했다.

프로야구 KBO리그 LG 트윈스-롯데 자이언츠 사령탑을 지낸 양상문 감독은 출국 직전 "여자야구를 위해 땀을 흘리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지휘봉을 잡았는데, 우리 선수들과 훈련하면서 남자 프로야구와는 다른 매력을 느꼈다. 훈련할 때마다 감동도 받았다"며 "국제대회에서는 결과를 내야 한다. 우리 선수들 모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대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랭킹 10위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B조에 속해 26일 일본(1위), 27일 자력 예선을 통과한 인도네시아(세계랭킹 집계되지 않음), 28일 필리핀(14위)과 차례대로 맞붙는다.

B조 상위 2팀은 슈퍼라운드 진출해 대만(2위), 홍콩(11위), 중국(15위), 인도(18위)가 묶인 A조 1·2위 팀과 최종 순위를 가린다.

양상문 감독과 선수들의 목표는 '조 2위로 아시아

컵 슈퍼라운드 진출하고, 8월 또는 9월에 열린 야구월드컵 본선 그룹 경기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 여자야구에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팀도, 실업팀도 없다.

한국 여자 야구연맹은 트라이아웃으로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할 대표 선수 20명을 선발했다. 가정주부, 체육 교사, 재일동포, 고교생, 대학생 등 동호인 야구를 즐기는 다양한 분야의 선수들이 대표팀에 뽑혔다.

대표팀은 3월부터 두 달간 경기도 화성드림파크에 주말에만 모여 훈련했다. 하지만, 주중에도 선수들은 '본업'을 병행하면서도 개인 훈련을 소화하는 열의를 보였다.

양상문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꿈만 보고 달려왔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훈련했다"며 "처음 만났을 때보다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 이번 국제 경쟁력을 증명할 차례"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세계최강 일본을 꺾는 건 어렵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이 전력상 우위다.

결국 한국과 필리핀이 B조 마지막 경기에서 야구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테니스 백다연, 빌리진킹컵 하트 어워드 수상

테니스 국가대표 백다연(NH농협은행)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빌리진킹컵의 최우수선수상(MVP) 격인 하트 어워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23일(현지시간) 2023 빌리진킹컵 본선 진출 및 지역 예선별 하트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다.

백다연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빌리진킹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 혼타마 마이(일본)를 제치고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1그룹 예선의 하트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역 1그룹 수상자에게는 2000달러(263만원)의 ITF 기금을 기부할 기회를 주는 가운데, 백다연은한국 선수 자신이 다니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수련교회에 쾌척하기로 했다.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돼 빌리진킹컵 데뷔전을 치른 백다연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단식 2승을 거두며 한국이 25년 만에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백다연은 "처음 나라를 대표해 경기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한국 선



백다연 2023 빌리진킹컵 플레이오프는 11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수로는 최초로 하트 어워드 수상까지 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테니 대표팀을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4일 영암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2023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6월 4일 전남 영암군 국제자동차경주장(KIC)에서 열린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아시아 모터스포츠 문화 교류를 목표로 2014년 처음 시작된 대회로 올해에는 '포르쉐 캐러라 컵 아시아'와 '가와사키 닌자 컵'이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6월 4일 2023 CJ대한통음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와 함께 치러진다.

'포르쉐 캐러라 컵 아시아'는 포르세 911 GT3 컵(3996cc·510마력) 차량으로 진행되는 원메이크(동

일 차종) 대회로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6개국에서 21명의 외국인 드라이버가 참가한다.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 달 말레이시아 세팡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막해 내달 3-4일 영암 KIC에서 3-4라운드를 치른다.

'가와사키 닌자 컵'은 동일 사양의 바이크로 진행되는 레이싱이다. 일본 로드 레이싱 챔피언십 J-GP3 클래스에서 2021시즌과 2022시즌 종합 챔피언에 오른 일본인 라이더 히로키 오노 등 총 21명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 2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3관 인어공주, 아기공룡 둘리: 열음별 대모험 리마스터링
- 4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5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 6관 인어공주
- 9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7관 씨네카를 사슴의 왕, 존 워 4, 드림, 극장판 썬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 8관 씨네카를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스템의 문단속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종섭, 도쿄로 보낸 편지'
 일시: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6